

기고



정 은 유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장

일반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과 짙은 농연이 발생하게 되면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주 다녔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이른 바, 패닉(Panic)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서 비상구는 이러한 화재 뿐만 아니라 지진, 건물붕괴 등 갑작스러운 사고에 급히 탈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또 다른 출입구를 뜻한다.

누군가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비상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을테지만, 그 중요성은 알고 있는 것만큼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가 있겠다.

소방시설법(약칭) 제16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약칭) 별표2에서 비상구 규격, 구조 등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75cm x 세로15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대피하여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되는 장소 또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주된 출입구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이는 주된 출입구가 피난 불능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Fail Safe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비상구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즉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백화점, 영화관 등의 건물에서 비상시 대피하였을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려고 하면 피난하면서 뒤에서 미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실제 화재 현장에서 빛을 발한다.

가시거리가 짧아져서 앞을 보기가 더욱 힘들고, 내부 구조를 숙지하거나 자주 다니는 곳이라 하더라도 방향 감각을 잃게 되어 낮은 장소가 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비상구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과 피난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생명의 비상구가 실현될 것이다.

이런 생명의 비상구, 비상구 앞 통로에 물품을 쌓아놓는다거나, 혹은 비상구 앞을 막아놓는 것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기껏 화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탈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참변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소방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서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지, 차단·임의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에 대한 나부터의 관심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화재 예방 네가지 안전수칙



류 도 형
/신안소방서장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겨울철은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28.1%), 인명피해(6.44%)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전남에서도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불철(29.2%)에 이어 겨울철(28.8%)에 주택 등 건축·구조물(51.9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평균 28.8명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안전 수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불나면 대피 먼저'이다. 불

은 화염과 함께 발생하는 연기가 시야를 방해하고 숨을 못 쉬게 하기 때문에 보기와 다르게 쉽게 진압하기 어렵다. 불이 났다면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한다.

둘째 '불법농·부산물 소각 금지'이다. 최근 10년간 농·부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69.8건을 차지하며 농·발두령을 태우다가 불에 갇히거나 연기에 질식사하여 사망한 사례가 48명으로 전체 산불화재 사상자(151명)의 32%를 차지한다. 불법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산불 피해를 막아야 한다.

셋째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이다. 겨울철이 되면 전기장판, 전기히터,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전기장판은 구부리지 말고 등글게 말아서 보관하고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히터 등은 재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난방기구나 화목보일러 주위에 빨래를 말리거나 라이더 같은 인화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넷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이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스스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으로, 겨울철 화재로부터 안전

한 사회를 만드는 네 가지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봤다.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에 발생하며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평상시 올바른 습관을 지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지켜 건강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보내도록 하자.

‘겨울캠핑’ 안전하고 현명하게



임 창 현
/장흥소방서 소방행정과

10월부터 3월 사이 발생했다.

특히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하러 온 여행객의 차량이나 텐트 안에서 발생한 중독 사고도 123건으로 26%로 집계됐다.

캠핑장에서 텐트 안에 불을 피운 채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기체로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보다 강해 체내 산소 부족을 유발한다.

무색무취로 공간 내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고 있던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된 원인으로는 부탄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기와 추워서 숯불이나 나뭇가지를 태웠던 화로를 밀폐된 공간에서 취급 부주의로 나타난다.

만약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를 발견하면 밀폐된 공간을 환기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일산화탄소를 다량 흡입한 지 6시간 내로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캠핑 관련 화재사고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난로 등 화기를 취급 시 텐트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둔 상태에서 환기구를 열어두고, 화기 난방 기기는 불을 끄고 텐트 밖에 뒀다 한다.

난로보다는 전기요가 비교적 안전하다. 다만 총 전기 용량은 600W 미

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KFI 등 인증 제품의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2개 이상 비치해 두도록 한다.

한편 모닥불을 피울 경우 불이 얼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전용 화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잠자리에 눕기 전 잔불 정리도 필수다.

위와 같이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겨울 캠핑 안전하고 현명하게 보내자.

기사제보 E-mail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광 고 국 (062) 363-0005
편집국(FAX) (062) 362-0078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편 집 국 장 (062) 363-8800
정 · 경 부 (062) 362-6116
사 회 부 (062) 362-6226
문 체 부 (062) 362-6116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 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honamma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생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단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레...010-8597-0053
부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